

2004년 하반기 산업전망

주력기간산업실
chch@kiet.re.kr

〈요 약〉

금년 하반기 10대 주력업종의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경기 회복은 이들 업종의 내수회복 여부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10대 주력업종의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상반기의 33.3%보다는 낮지만, 19.5%로 여전히 안정적인 수출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하반기 내수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명암이 엇갈려 향후 내수회복 여부가 하반기 산업경기를 좌우할 것이다.

조선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가전, 컴퓨터 등은 국내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생산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이러한 현상이 최근 국내경기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침체를 면치 못하던 국내투자는 컴퓨터,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중심으로 설비투자과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요 경제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상승, 철강 등 기타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하락 등은 이들이 단기에 그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1. 금년 상반기 동향

(1) 수출급증에 의한 산업생산 증가

금년 상반기에도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일부 업종은 큰

폭의 내수감소가 이루어지거나 정체를 면치 못한 반면, 대부분의 주력업종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산업생산의 증가를 견인하였다. 자동차, 섬유,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작년 동기 대비 내수가 감소했으

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들도 내수 증가세가 5%를 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특히 내구소비재인 자동차와 가전, 컴퓨터 등은 큰 폭의 내수감소를 보여 내수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섬유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가전을 제외한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IT제조업은 40%를 상회하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우리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소비재상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중국 등 개도권의 높은 성장에 힘입은 한국산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수요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통신기기와 디지털가전, 컴퓨터 등 IT제품의 품질향상에 힘입어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도 한국제품에 대한 품질인정과 인지도 상승, 중국 등 개도권의 개발 특수 등으로 인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IT제조업의 높은 생산증가율

자동차는 높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생산 감소를 면치 못했고, 섬유는 내수 감소 폭에 비해 수출증가가 미미하여 생산역시 감소를 면치 못했다. 가전과 철강 등의 경우에도 내수가 감소하거나

낮은 내수증가로 5% 미만의 생산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수출특화 산업인 조선이나 IT제조업의 주력부문인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은 높은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높은 생산증가를 실현함으로써,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경기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수출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투자재 및 원부자재 수요 충족을 위해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통신기기, 반도체 등 자본재 및 부품소재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섬유, 컴퓨터, 가전 등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금년 하반기 전망

(1) 안정적 수출 증가세와 내수회복

10대 주력 업종 전체의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상반기의 33.3%보다는 낮지만 19.5%로 여전히 안정적인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물량기준으로 12.5%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철강산업의 경우 하반기에는 3% 미만 수준으로 떨어지고, 상반기 4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자동차,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도 30% 아래로 낮아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내수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나, 업종

〈표 1〉 주요 기존 주력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생 산	11.9	-9.1	-1.8	17.8
	수 입	13.7	-10.6	7.7	12.0
	내 수	-10.0	-7.5	-25.5	0.5
	수 출	24.1	17.1	30.6	20.0
조 선	생 산	20.4	1.5	13.6	0.2
	수 출	22.8	1.1	14.0	1.3
일반기계	생 산	5.4	5.1	5.8	6.2
	수 입	33.2	17.7	27.0	17.3
	내 수	8.0	3.6	5.2	5.8
	수 출	23.2	22.8	29.0	18.4
철 강	생 산	3.3	2.8	2.1	2.2
	수 입	14.3	6.7	14.6	6.6
	내 수	5.4	2.3	3.6	3.4
	수 출	3.6	15.0	12.5	2.9
석유화학	생 산	2.8	4.1	7.4	4.3
	수 입	6.3	4.8	10.3	10.1
	내 수	0.3	-4.7	0.7	3.9
	수 출	6.1	11.1	12.7	8.9
섬 유	생 산	-2.1	-0.5	-6.7	-4.2
	수 입	9.2	-0.5	13.7	16.1
	내 수	-10.2	1.9	-6.3	-3.7
	수 출	-2.2	-2.8	3.1	3.3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6.

주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은 물량기준이고, 섬유의 생산 및 내수는 물량, 수출입은 금액이며, 조선, 일반기계는 모두 금액기준임.

에 따라서는 명암이 엇갈려 향후 내수회복 여부가 하반기 산업경기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반기에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자동차는 업체들의 판촉강화 및 경기회복 기대심리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되고, 섬유도 내수감소율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의 경우

노트북 수요의 증가, EBS 교육방송 등 컴퓨터 특수, PC의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화 등에 따라 큰 폭의 내수 감소세에서 벗어나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수가 회복될 전망이다.

한편,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자본재 및 소재산업도 투자확대와 수

요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상반기에 비해 내수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가전 및 통신기기는 가계부채 문제와 고용불안 등 구매력 감소요인이 큰 데다, 신규가입 유치의 한계 등으로 내수감소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IT제조업 의존도 심화

통신기기, 반도체 등 핵심 IT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20%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고, 컴퓨터도 6.1%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된다. 컴퓨터, 가전, 통신기기 등 주요 IT소비제품의 생산증가는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확대에 기인한다.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등 기존 제품의 국내외 수요급증과 더불어 USB메모리стик, 자동차 등 신수요가 등장함에 따라 반도체의 생산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도 내수회복,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힘입어 18% 이상의 생산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하반기에도 품질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기업의 판촉활동, 경기회복 기대심

〈표 2〉 IT제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가 전	생 산	-1.5	15.8	4.6	3.6
	수 입	14.6	17.8	19.9	19.2
	내 수	-2.9	12.7	-7.4	-8.2
	수 출	10.4	24.0	29.1	27.5
통신기기	생 산	21.2	8.2	22.0	21.0
	수 입	-4.0	17.8	31.0	22.0
	내 수	7.1	-13.0	-2.5	-3.6
	수 출	39.6	34.0	49.5	38.0
컴 퓨 터	생 산	-4.3	5.2	8.3	6.1
	수 입	-3.3	3.0	14.5	12.0
	내 수	-7.4	-12.8	-15.0	-0.2
	수 출	0.5	30.8	45.4	19.0
반 도 체	생 산	21.3	25.8	26.8	27.5
	수 입	28.5	16.9	22.7	16.2
	내 수	32.6	18.8	11.8	23.9
	수 출	6.5	27.1	53.1	21.4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6.

주 : 모두 금액 기준임.

리 등으로 내수가 작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중국 건축 등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내수부진 등으로 하반기에도 생산증가율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산업은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은 현재의 수주상황과 건조일정을 감안해 볼 때 작년 하반기에 비해 생산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지속적 수출수요 확대와 더불어 국내에도 설비투자 증가 및 자동차, 전자 등 수요산업의 성장이 예상되어 일반기계의 생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하반기의 주력산업 수입 증가는 상반기의 26.5%보다 낮은 17.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섬유 및 가전의 저가품 역수입뿐만 아니라, 수출호조에 힘입어 자본재 및 부품, 소재 등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수요의 증가와 일본차의 진출 확대 등으로 자동차 수입도 12% 이상의 증가를 나타낼 전망이다.

(3) 해외생산 증가 추세

조선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석

유화학, 섬유, 가전, 컴퓨터 등은 국내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생산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 확장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최근 국내경기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전이나 컴퓨터, 섬유 등에서는 업종내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품목의 국내 생산을 줄이는 대신, 해외생산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생산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산업내 생산구조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력업종 분야에서 해외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크게 저임금노동력 활용과 현지수요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등 개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 대부분 두 가지 이유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 등 기존 주력산업들은 현지수요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가전, 섬유, 컴퓨터 등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 개도국에 진출한다.

한편, 자동차나 반도체, 디지털가전 등은 선진국에서의 현지생산 확대 또는 현지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현지시장의 공략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회피수단으로서 해외생산을 활용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주요 산업의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변화(금년도 하반기 예상)

	해외생산 변화 없음	해외 및 국내 생산 동시 증가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정체	해외생산 증가, 국내생산 감소
자 동 차			○	
조 선	○			
일 반 기 계		○		
철 강		○		
석 유 화 학			○	
섬 유			○	
가 전			○	
통 신 기 기		○		
컴 퓨 터			○	
반 도 체		○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6.

(4) 증가가 예상되는 하반기 투자

그동안 침체를 면치 못하던 국내투자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감소가 예상되는 컴퓨터 및 섬유산업을 제외하면

전업종에서 설비투자과 연구개발투자가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TV, 프리미엄 백색가전 분야의 사업 확대 등이 예상되는 가전산업과, 플래시메모리 등의 생산라인 증설이 예상되어 있는 반도체산업에서는 대

〈표 4〉 주요 산업의 투자예상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총투자
자 동 차	△	△	△
조 선	△	△	△
일 반 기 계	△	△	△
철 강	△	△	△
석 유 화 학	△	△	△
섬 유	▽	△	▽
가 전	▲	▲	▲
통 신 기 기	▲	△	△
컴 퓨 터	▽	△	▽
반 도 체	▲	△	▲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6.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대적인 설비투자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산업들이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경우도 단순한 생산능력 확충이 아니고,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제품 투입을 위한 설비개체나 노후설비 개체, 자동화, 에너지절약 등 합리화투자, 공해방지 등에 기인한다.

3. 주요 여건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 경제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상승, 철강 등 기타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하락 등은 이들이 단기에 그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1) 중국 긴축정책의 영향

중국의 긴축정책이 우리의 수출, 수입, 중국 직접투자 등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철강은 긴축정책의 직접 규제 대상품목이어서 국내 수출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규제품목으로 거론하고 있는 철근, 봉,

형강 등 건자재의 대중 수출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은 아직까지 자국제품 자급률이 낮고, 원자재 성격의 수출패턴으로 인해 중국의 수입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위축, 물동량 감소 등이 이루어지면 선박 수주량 감소 등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산업의 구조조정, 대출심사 강화 및 금리인상 등이 수반될 경우 일반기계, 철강, 섬유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중국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유가상승의 영향

유가상승이 대부분의 산업에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석유화학을 제외하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가전을 제외하면 내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는 특정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여타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생산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어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 판매 감소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선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가상승이 원유수요 감소로 이어져 탱커수요가 감소할 경우 1, 2차 오일쇼크 때처럼 큰 폭의 선박 발주 감소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3)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

철강은 고철, 조선은 후판, 석유화학은 납사, 자동차는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 일반기계는 철강 등이 주요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어, 이들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생산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원자재가격의 상승도 세계적인 현상으로 단기적

으로는 국내업체의 수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기업의 채산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4) 환율하락의 영향

환율하락은 전반적으로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효과를 지니고 있겠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의 환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하락을 바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단기기간내 수출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환율하락으로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지니고 있다.

〈표 5〉 주요 여건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상승				기타원자재 가격상승		환율하락		
	수출	수입	해외투자	수출	내수	수입	생산비용	수출	생산비용	수출	수입	생산비용
자동차	○	○	○	○	▽	○	△	○	△	○	△	○
조선	○	○	○	○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	○	○	○
철강	▽	○	▽	○	○	○	△	○	▲	▽	○	▽
석유화학	○	▽	○	▽	○	▽	△	▽	△	○	○	▽
섬유	○	○	○	○	○	○	▲	○	○	▽	△	○
가전	○	○	○	○	▽	○	○	○	△	▽	△	▽
통신기기	○	○	○	○	○	○	○	○	○	○	○	▽
컴퓨터	○	○	○	○	○	○	△	○	○	▽	△	○
반도체	○	○	○	○	○	○	○	○	○	○	○	○

주 : 1) 영향은 ○(영향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2) 중국경제는 긴축정책으로 연착륙 예상, 유가는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가정. 대미환율은 하반기 1,145원 예상.

4. 산업별 전망 요약

자동차의 경우 내수가 상반기의 침체에서 회복되고 수출증가세도 지속되어 생산은 상반기의 감소세에서 17%를 상회하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기회복, 국산 자동차의 품질향상 등에 의해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회복의 기대감과 업체들의 판촉 강화로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의 경우 현재 3년치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조일정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풀가동상태이므로 생산증가율이 크게 높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계의 경우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지만 내수증가율이 다소 높아지는 영향 등으로 생산증가율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높은 6.2%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의 경우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수출의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안정적인 성장 등으로 철강생산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증가세 지속,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생산도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출증가율의 둔화로 생산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섬유의 경우 선진국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해 생산도 상반기에 이어 감소세를 면치 못 할 전망이다.

가전의 경우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나 한국산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 올림픽 등 디지털TV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생산은 3.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기기의 경우 내수는 위축되고 있으나 세계시장의 성장지속, 브랜드 이미지 제고, 독일, 영국 등으로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도 2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의 경우 수출증가세가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내수도 작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도 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등 기존 반도체 응용제품 수요 급증뿐만 아니라 USB메모리стик, 플래시메모리, 자동차 등에서의 신규수요 확대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어 생산도 27% 이상 증가가 기대된다. 